



PET 필름 및 NYLON 필름 수급 동향

Market Trend of PET Film & Nylon Film

1. PET 필름

석유화학 원료인 TPA를 얇게 가공해 만드는 PET(polyester) 필름은 산업용, 포장재용, 태양전지 소재용, 광학 디스플레이용으로 폭넓게 쓰이며 흔히 볼 수 있는 음료수병과 비닐봉투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로는 SKC(주)를 필두로,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인더스트리, (주)효성 등 5개사가 PET필름을 생산, 국내외에 공급하면서 기존의 식품포장이나 전자부품, 공업재료, 자기재료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것에서 전자부품, IT, 광학 관련 분야까지 확대되며 성장하고 있다.

SKC(주)는 국내 최초로 PET 필름 등을 생산한 이래 친환경 제품인 열수축, IT산업의 기재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Display), 이형용 필름을 적시에 개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에만 16개 PET필름 생산라인을 보유, 총 16만4천톤의 생산능력을 자랑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5만6천톤을 수출했으며, 7만8천톤을 국내에 공급했다.

SKC(주)가 생산하는 PET필름의 경우, 광학용이 총 생산량의 46%가량을 차지, 가장 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용 40%, 포장용의 경우 14%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트위스트(1%), 열수축(8%), PVdC(2%), LSF(2%), 일반(2%)로도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광학용의 경우, 디스플레이(Display)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국 시장은 정체된 반면, 아시아 지역의 경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TV수요는 정체되었지만 스마트기기 및 IT의 경우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열수축에 활용되는 PET필름 시장의 경우 글로벌 브랜드 위주로 PVC로 전환되는 데다가 FET, Fuwei 등 신규 경쟁자 출현으로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PET Anti-Dumping 만료 시점인 '15년 5월, 상대적 가격이 높은 내수 시장으로 유입 될 경우, 판매

(표 1) PET 필름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SKC(주)	16	164,000	56,000	78,000
도레이첨단소재(주)※	11	140,000	27,200	109,4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10	120,000	36,000	84,000
화승인더스트리(주)효성	2	36,000	4,000	24,000

※ 도레이첨단소재 : 내수에 자체 가공용 수량 32,200톤/년 포함 수량임(2013년 기준)

가격 및 수익성 하락이 예견되고 있어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형용의 경우 터치패널(Touch Panel)의 대형화에 따라 LCD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태양광용의 경우 세계 구조 조정 진행으로 경쟁력 없는 메이커(Maker)는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2018년 이내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할 전망이다(**그리드 패리티란,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발전 비용이 낮아져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시점을 뜻한다. Grid Parity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에너지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고 있다).

SKC(주)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약 520만톤의 공급갭(Capa)가운데 약 367만톤(70%)이 수요될 전망이며 오는 2018년까지 연 6% 수요 성장을 예상한다고 전했으며 전체 PET 공급량 중 Specialty Film은 약 65만톤(18%) 차지하며 '18년까지 연평균 7% 가량의 성장을 예견했다.

한편, SKC(주)는 지난 해 중국 장쑤성 난통시 경제기술개발구에 PET필름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연 3만3천톤 규모의 고기능 열수축 PET필름 생산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의 수원, 진천공장, 미국 조지아 공장 등을 포함 총 21개 생산라인에서 연 24만 톤 PET필름 생산능력을 확보한 상황이며, 2015년까지 PET필름 30만 톤 글로벌 생산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개 PET필름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주)는 1985년 PET 필름을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12년 11호기를 증설한 바 있다.

총 14만톤의 PET필름 생산이 가능하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2만7,200톤을 수출하고 10만9,400톤을 국내에 소비했다.

도레이첨단소재가 생산하는 PET필름은 편광 및 이형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용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편광 및 이형용 33%, 광학용 29%, 공재용 25%, 포장용 8%, 증착 2.5%, 자기용 및 CON/TTR 2.5% 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PET필름 업계는 국내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수급 밸런스의 불균형이 이어지는 상황이며 여기에 수입산 저가 제품 유입량 증가까지 예상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LCD관련 시장 성장세 둔화 및 LCD관련 가공사업의 중국 이동 가속화로 인해 범용 제품 군에서 경쟁 심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향후 PET 필름 업계는 연평균 3~4%정도 성장할 것이라며 기존 생산CAPA 초과 및 수입 물량의 증가



특 집

[표 2] Nylon필름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	7,920	4,920	3,000
(주)효성	2	10,000	4,000	5,500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2	9,000	4,000	5,000

로 수급 불균형 상황은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판가 하락 및 생산자의 채산성 악화가 예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1985년 구미 공장에서 PET 필름 생산을 시작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이후 김천공장에 PET 필름 생산라인을 증설, 1997년부터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PET 필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10개 라인을 보유, 연 12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해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 3만6천톤을 수출하고 8만4천톤을 국내 시장에 공급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PET 필름은 디스플레이 제품의 기재 필름으로 사용되는 광학용을 비롯해 LCD TV, LCD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편광판용 뿐만 아니라 대전방지필름, 점착테이프, 전선&절연용 등에 활용되는 산업용, 그리고 일반 포장인쇄, 라미네이팅, 수축라벨, 증착제품 등으로 사용되는 포장용도 등에 활용, 적용되고 있다.

포장용을 중심으로 볼때 내수로 5백톤 가량 사용되며 수출은 2천톤 정도, 이 가운데 인쇄용은 80%, 합지용으로 20% 정도 사용되었다.

코오롱 관계자는 “PET필름 업계의 경우 수입산 저가의 제품들로 메이커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짐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향후 PET 사용량은 2~3% 정도 성장할 것 같지만 수입산에 덤핑이 되지 않으면 포장용에 관해서는 내수 메이커 생산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1997년부터 PET필름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1개 라인에서 1만 8,619톤을 생산한다. 지난해에는 2천114톤을 수출했으며 1만3,266톤을 국내에 소비했다.

화승의 PET 필름은 스템핑포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비율을 살펴보면 스템핑포일 26%, 포장용 17%, 라미넥스 10%, 테이프용 4% 가량 사용되며 나머지는 기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화승인더스트리 측은, PET 필름 업계의 경우 201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판매단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내 및 해외 저가필름 유입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 악화가 유지 되는 상태에서 판매처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도 어려운 시장상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올해 필름 시장은 약 2%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증대 및 신규 거래처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997년부터 PET 필름 생산을 시작한 (주)효성은 현재 2개 생산라인을 보유, 연 3만6천톤 생산이 가능하다. 지난 해에는 4천톤을 수출, 2만4천톤을 국내에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포장용과 산업용으로 각각 50% 씩 활용됐다.

효성 관계자는 상반기 세월호 사고로 인해 야외활동 축소로 인한 포장용 수요가 정체되고 있지만 반면에 원화 환율 강세로 인해 수입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TV 시장 호조로 광학용 시장은 비교적 활발하나 모바일 시장 침체로, 산업용은 수요 부진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포장용 수요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광학용은 성장세 약간 둔화되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한국포장협회 PET필름 생산 업체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평균적으로 PET필름 성장률은 올 해 2~2.5%가량 기대되고 있지만, 업계에 팽배해 온 수입산 저가 제품에 따른 경쟁력 및 수익성 악화 문제가 야기시키는 어려움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2. 나일론 필름

나일론 필름은 산소 투과도가 낮고 내한성, 내편흡성이 우수하여 냉장식품, 냉동식품, 레토르트 식품, 리필 포장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주)효성이 각각 2개 라인을 보유, 생산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경우 7천920톤 가량의 생산능력을 보유, 지난 해 수출 4천920톤, 내수 3천톤의 실적을 거뒀다. 나일론 필름의 경우도 수입산의 국내 유입으로 단가가 하락되고 있는 상황으로, 레토르트 파우치의 수요 증대와 성장에 따라 레토르트 파우치 용도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적인 포장용 시장은 좋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 관계자는 국내 메이커들

도 점점 포장용에서 산업용으로의 어플리케이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 생산 9천톤 가운데, 4천톤을 수출하고 5천톤을 국내에 공급한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올해 국내 경기 회복지연(소비지연) 등으로 내수 필름 사용량 감소로 인해 3개사의 경쟁 구도 심화, 특히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을 예상했다. 2010년부터 재시작된 공급과잉 현상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환율하락으로 인한 중국 및 동남아산 등 저가의 수입품 급증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어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전체 나일론 필름 시장의 규모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수입산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업체는 마이너스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제이케이머티리얼즈는 고객지향적 서비스 강화(품질, 납기 등)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배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측은 “현재 나일론 필름 업계는 레토르트 용 및 제약용의 꾸준한 수요 증가로 전체 수요는 소폭 증가되고 있으며 원화 환율절상으로 수입 물량이 소량 증가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 1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효성은 지난 해 4천톤을 수출하고 5천5백톤을 국내에 공급했다.

국내 나일론필름 시장은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舊자강산업)가 하니웰의 9천톤 공장을 2009년 말 인수한 뒤 2010년 1월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코오롱, 효성의 양강체제에서 3사가 경쟁을 하게 된 것으로 의견을 종합해 볼때 올해 나일론 필름 시장은 전년과 동일 규모이거나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